

자유학기제에 대한 도서관의 대응 방안 연구*

A Study on Effective Counterplan of Library to Free Learning Semester

권 은 경(Eun-Kyung Kwon)**

<목 차>

I. 서론	관심
II. 자유학기제의 이해	2. 학교도서관과 핵심역량교육
1. 자유학기제	3. 학교도서관의 활용 정도
2. 자유학기제의 추진 경과	4. 공공도서관의 지원 활동
3. 진로교육 vs. 핵심역량교육	5. 대학과 문헌정보학과의 역할
III. 자유학기제와 도서관	IV. 결론
1. 자유학기제에 대한 도서관과 학계의	

초 록

자유학기제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방법 개선과 진로교육 강화로 교육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핵심역량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학교도서관의 이용, 공공도서관의 지원 활동 현황과 개선 방안, 그리고 대학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과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학교도서관은 핵심역량 함양에 효과적인 교육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는 매우 낮으며, 공공도서관의 학교 지원 프로그램은 외부 특강과 탐방에 치우쳐 도서관의 자료와 서비스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미흡하다. 교육계가 공공도서관의 지원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학교도서관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대학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과의 교수, 학생을 연계하여 직업체험, 진로교육, 그리고 역량 함양을 아우르는 입체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공공도서관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키워드: 자유학기제, 수업개선, 핵심역량,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자유학기 프로그램

ABSTRACT

Free learning semester aims to foster key competencies in junior high students via reinforcing student participation and career educa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grams of school and public libraries, as well as the roles that university libraries and LIS could play in the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School libraries, though an essential element in the educational infrastructure, are seriously underused. In addition, the support programs of public libraries tend to focus on guest lectures or field trips, rather than reinforcing the students to experience the foundational library services. Public libraries are in a good position to play an active role in strengthening school libraries. They should take a proactive role in forming a partnership with university libraries, LIS faculty and students, and in developing diverse programs ranging from vocational/career education to enhancing key competencies.

Keywords: Free learning semester, Improving instructional methods, Key competencies, Public libraries, Library on the road, Library-assisted instruction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eunkwon@daegu.ac.kr)

•논문접수: 2017년 11월 17일 •최초심사: 2017년 11월 25일 •게재확정: 2017년 12월 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49-76, 2017.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12.49]

I. 서론

이 연구는 2016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라는 교육 혁신의 물결에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없애고 오전에는 기본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꿈과 끼를 살린 행복한 수업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업, 협동수업, 토론수업 등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과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기르는 것 또한 자유학기제를 추진하는 중요한 목표이다.

2003년도부터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학교 과제로 수행된 ‘학교도서관활용수업’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대표 주자로 인식되었다. 도서관활용수업이 갖는 유용성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활용수업을 가로막는 최대 제약의 하나는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를 탐색하기 위해 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연구학교에서는 블록 수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유학기제는 교과과정 편성에서 자유학기 활동을 위해 시간을 블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교수방법이 시도되고 수업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학교가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유학기에서 학교도서관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첫 번째의 관심사이자 주요 연구 목적이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자유학기제 추진의 한 축을 형성하는 미래 핵심역량의 함양과 학교도서관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등장배경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로 지적되는 획일적이고 암기 중심의 교육 방식과 성적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 풍토를 개선하는 것과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필요성이 함께 작용하였다.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매체의 지식정보자원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설비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수업을 개선하고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교육 인프라이다. 자유학기제에 학교구성원의 핵심역량에 대한 관심은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방법의 모색과 맞물리게 될 것이고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은 이전 어느 때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세 번째로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많은 관심이 진로 탐색, 진로체험 등의 진로 교육에 할애되고 있다. 교육부는 진로 탐색과 진로 체험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공공기관, 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공공기관으로서, 그리고 지역의 교육 파트너로서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의 지원방법과 프로그램 운영의 특성과 효과,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상의 목적으로 수행된 이 연구는 이질적인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자유학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의 개념과 추진 방향, 학교의 운영 과정에서 표출된 추진 방향의 수정 등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는 교육과정 변화 속에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 활용 정도를 분석하고, 공공도서관의 지원 활동과 개선방안, 그리고 대학과 학계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자유학기제에 관해서는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의 논문에서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되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도서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유학기제의 기본 개념과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 자유학기제의 이해

1.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2013년에 42개의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연구학교를 확대 적용한 후, 2016년에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다. 2015년 9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제44조3항과 제48조의2를 신설하여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고, 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자유학기에는 학생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과정중심 평가,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을 기술함으로써 자유학기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자유학기제의 개념, 추진 배경과 목적, 운영 방법을 교육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교육부 2013)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교육부 2015)의 내용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학생들이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식과 경쟁 중심의 교육을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하여 학교 교육을 혁신하는 것이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8권 제1호)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추진배경을 입시위주의 경쟁으로 암기식·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어 있어 학습 흥미도와 행복지수가 낮은 학생들에게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종합하면 자유학기제의 등장에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는 정치적 배경, 과도한 경쟁과 입시교육에 대한 마련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 중학생의 행복에 대한 관심과 진로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계의 요구, 그리고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조하는 세계적 교육 개혁의 흐름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신철균 2014, 46).

자유학기 운영의 기본적 특성은 교과과정의 재구성, 수업방법의 개선, 질적 평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교과과정은 기본 교과시간을 감축하여 오전에는 기본교과의 공통과정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학생의 흥미 관심에 기반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동아리 프로그램, 예술·체육 프로그램, 학생 선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네 가지 유형의 자율과정¹⁾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업 방법은 학생의 참여 활동이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과별 특성에 맞게 토의 토론, 실험 실습, 조사, 프로젝트, 탐구, 협동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며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 융합, 통합 수업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블록타임을 활용하여 교육 학습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 방법에서는 기존의 지필 평가 양적 평가를 벗어나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및 서술형 평가를 강화하여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과 심동적 영역을 포함하는 다면적 평가 방법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 교육의 과도한 성적 중시 풍토 성적 경쟁 풍토를 완화하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정광순 2013).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서울형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한 학기에 한정하여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데 비해 서울형은 집중 실시하는 자유학기 전 후에 탐색학기 또는 연계학기를 운영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2. 자유학기제의 추진 경과

2013년도 2학기부터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의 시범적 운영을 거쳐 2016년도부터 모든 중학교에 전면 시행되고 있다. 초기의 연구학교들은 완제품 형태의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시제품에 해당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을 제공받고 학교 상황에 맞게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최상덕 2016a, 81). 연구학교들은 자유학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1) 정책 초기에는 교과과정을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으로 구분하였으나, 이 후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인 자율 활동과의 용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과정'을 '자유학기 활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음(최상덕 2016a, 81)

서는 공감하였으나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우려와 의구심을 가졌으며, 기본교과 시간이 감소되고 지필고사가 없으므로 진도의 차질과 성적 하락 등을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2학기에 42개의 연구학교로 출발하여 2014년에는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수가 교육부가 계획하였던 중학교의 19%인 600교에서 25%인 811교로, 2015년에는 50%인 1,500교의 계획이 실제로는 80%인 2,551교로 증가함으로써 핵심역량 함양, 행복교육 실현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어 현장에 조기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교육부 2015).

교육부는 이러한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운영학교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학기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2학기 이상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자유학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7). 서울시교육청 역시 자유학기 전 후에 탐색학기, 연계학기를 운영하는 것 외에 자유학기의 성공 사례를 2, 3학년으로 확산하는 선도 모델로 2016년부터 중2혁신자유학년제, 중3맞춤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자유학기제를 수행한 연구학교의 보고서를 통해 자유학기제 실시의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운영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는 실시하기 전의 기대치보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모든 그룹에서 향상되었다(교육부 2015; 최상덕 2016b). 학생은 즐거운 학교생활, 친구와의 경쟁완화, 교사와의 대화 증가, 표현력 향상, 수업 태도에서 집중도 향상, 체계적인 진로탐색의 변화 등의 효과가 있었고(최상덕 2014a),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향상되어 행복감을 느끼며, 학교구성원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학습동기, 흥미, 몰입도 등 학생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최상덕 2014c). 학생이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자유학기 이후 일반 학기에의 적응, 과도한 수행평가로 학습 부담이 증가, 학습내용의 감소, 활동중심의 수업으로 수업 분위기가 산만한 점 등이 있다(최상덕 2014a; 2014c).

교사측에서는 수업전문성이 신장되어 수업 효능감이 향상되고, 학생들을 이해하고 관계가 개선되며, 교사간 협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수업시수가 줄어들어 수업진도에 차질, 과도한 행정업무, 서술형 평가 등으로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최상덕 2014a; 최상덕 2014c).

자유학기제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자유학기제 시행시기의 적절성 문제, 학년 간 연계 부족과 이후 학기의 학업부담,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방향설정에 있어서의 시행착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등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 중에 일선학교를 가장 혼란스럽게 한 것은 자유학기제의 방향과 정책의 일관성이었다. 2013년도에 처음 연구학교 신청을 받을 때 교육부는 진로인성체험과 수업방법개선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학교가 진로인성체험을 선택하자 교육부가 뒤늦게 수업개선을 강조하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체제로 변경되

었다.(최상덕 2014b, 437; 신철균, 박민정 2015) 시행 초기에 자유학기제의 운영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하였고, 진로 및 체험활동을 강조하던 것에 수업개선이 추가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초기에 강조되었던 진로 및 체험 활동보다 수업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수업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체험 중심 활동은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 진로 탐색 및 체험, 인성 개발을 위해 특강을 요청하거나 탐방을 하는 경우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이 많아지고 경비 부담이 생기는 점, 교외 체험활동의 안전 문제, 직업 체험을 위한 체계적 인프라 및 연계망의 부족으로 결국 자유학기제의 활동은 수업개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최상덕 2014b, 119, 122, 437) 등, 진로 및 체험활동에 따른 제약이 한 요인이다. 다른 하나는 교수 학습과 수업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다. 지필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교사들 스스로 수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수업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보다는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하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방법의 활용이 유의미한 학습경험으로 전환되고 학습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한다(최상덕 2014b, 99)는 수업의 본질에 대한 논의, 외부의 체험 활동보다 내적으로 수업이 변화되어 교실이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최상덕 2014b, 327, 572), 수업개선이 이루어져야 진로체험을 해도 학생들이 생각을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다(최상덕 2014b, 419)는 수업개선의 중요성이 학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결과적으로 학교는 일회적이고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 부담이 큰 특강과 직업 탐색 및 체험 활동보다 교수 학습의 개선과 교사의 역량 함양에 힘쓰는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자유학기제는 명확한 목표와 운영 매뉴얼 갖고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수업개선과 진로체험 뿐만 아니라 지식과 역량, 불안과 기대라는 서로 상이한 가치가 대립되는 양가성 현상이 나타났다.(임종현 2016). 시간이 지날수록 양가성 현상은 완화되면서 초기에 ‘자유학기를 진로 체험 학기로 잘못 인식하던 것에서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이 중심이 된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신철균 2014, 122;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 2015, 46)로 인식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3. 진로교육 vs. 핵심역량교육

진로교육과 수업개선은 자유학기제의 핵심 요소이다. 진로탐색 및 체험에 포함된 꿈, 끼, 적성, 진로가 경쟁 중심의 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키워드라면 수업개선은 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지식정보를 구축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방법의 전환을 가리키는 키워드이다.

자유학기제 초기에는 진로 탐색 체험에 큰 비중을 두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 활동(자율과정)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진로 탐색 활동에 대해서는 선택교과인 「진로와 직업」과 진로교육을 위해 개발된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교과(국영·수사·과기·술·가정·도덕) 통합 진로 교육의 활성화, 자유학기 동안 2회 이상의 진로 체험, 진로 상담과 검사 체계 구축, 진로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교육부 2013; 2015).

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진로체험 활동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2014년 12월에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MOU를 체결하였으며, 진로 탐색 및 체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기관 발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교육부 2014). 중앙부처 뿐 아니라 51개의 기업·기관들이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학교와 체험처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을 구축하였다(교육부 2015).

이와 같은 교육부의 노력으로 2013년도 연구학교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중 진로탐색 유형이 가장 많이 운영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진로교육으로 오해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연차를 거듭할수록 기본교과의 교육과정으로 그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최상덕 2016a, 45).

한편 수업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불확실한 글로벌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의 교육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역량이라는 용어는 주로 기업이나 직업교육에서 강조된 것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심동적 특성 혹은 지식, 기능, 가치, 태도와 같은 인간의 여러 특성이 복합된 것으로 본다(백남진, 온정덕 2016, 38). 최근에는 일반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생애 능력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교육 맥락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과제 수행 상황에 얽혀있는 복잡한 맥락적 요소들을 읽어내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식, 기능, 전략, 가치 등을 선택, 활용해가는 인지적, 반성적 성찰 능력’(박민정 2009, 75)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기초연구에서부터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학생의 역량 교육이 강조되어왔으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핵심 역량을 설정하였다.

자유학기제의 배경에 역량 교육이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은 암기 위주의 지식 획득으로 성적을 우선시하는 현재의 교육으로는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는 국내의 위기의식과 함께 역량기반 교육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동향이 작용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역량이 주로 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 논의된

역량,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논의된 ATC21S의 역량, 그리고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술된 역량을 통해 핵심역량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OECD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역량의 개념을 정립하여 역량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인식시켰으며, 3년 마다 실시하는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조사를 위한 역량의 개념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있어서 역량의 논의를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OECD 2005).

DeSeCo에서는 역량을 ‘일련의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특정 상황의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핵심 역량은 삶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삶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핵심 역량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범주별 세부 역량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DeSeCo의 핵심역량

범주	핵심역량
1.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1-1. 언어, 상징, 텍스트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1-2.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1-3. 기술을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2. 사회적 이질집단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	2-1.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능력 2-2. 협동하는 능력 2-3.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3.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3-1. 넓은 시각에서 행동하는 능력 3-2. 인생의 계획과 개인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능력 3-3. 자신의 권리, 관심, 한계, 욕구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능력

DeSeCo에서는 <표 1>의 아홉 가지 역량 외에 성찰(reflectivenes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찰은 모든 역량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21세기 역량의 평가와 교육(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Century Skills(ATC21S))」 프로젝트는 시스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의 요청과 재정지원으로 호주, 핀란드, 싱가포르, 미국 등의 국가가 참여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었다. ATC21S 프로젝트의 목적은 21세기에 필요한 역량(skills)을 찾아내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인데 핵심역량을 사고방식, 업무방식, 업무수단, 세계 속의 생활방식의 네 개 범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CISCO 홈페이지).

〈표 2〉 ATC21S의 핵심 역량

	사고방식	업무방식	업무수단	세계 속의 생활방식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력과 혁신능력 ●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 학습을 학습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력 ● 협동력(팀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리터러시 ● ICT리터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식-로컬, 글로벌 ● 삶과 직업 ●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의식

ATC21S 프로젝트는 기업의 업무 환경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ICT리터러시와 협동력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평가 방법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ATC21S의 평가 방법은 OECD에 제시되었고 OECD는 이를 반영하여 PISA 2015에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평가에 포함시켰다(Griffin & Care 2015: 백남진, 온정덕 2016, 23에서 재인용).

우리나라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을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여섯 가지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 바.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이상에서 살펴본 OECD와 글로벌 기업이 제시한 역량 요소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 인간으로 또 직업인으로 미래에 적절하게 대처하게 위해서는 지식정보는 물론이고 창의력 사고력과 같은 고등인지능력, 일상생활에서나 업무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기관리능력, 언어 기술 정보 ICT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이질적인 공동체에서 의사소통하고 관계를 잘 맺는 능력,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요하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제시하는 것은 핵심역량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의미이며, 모든 교과는 교과의 전문 지식을 교육하는 한편 교과 학습을 통해 핵심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서관의 활동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 활동 역시 도서관의 고유한 교육활동을 통해 핵심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Ⅲ. 자유학기제와 도서관

1. 자유학기제에 대한 도서관과 학계의 관심

자유학기제에 관한 문헌정보학 연구자들과 도서관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자유학기제에 대한 우리 분야의 관심 정도를 알 수 있다. KERIS의 검색사이트(RISS)와 국회도서관을 통해 검색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계의 연구자료

발행년도	학회지 학술논문	일반학술기사	단행본(연구보고서/매뉴얼)	합계
2015	0	4	1	5
2016	4	4	4	12
합계	4	8	5	17

(2016년도의 학술논문 두 편은 2015년과 2016년에 간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학회지 학술논문은 2편이며, 전체 연구는 15편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에 관한 연구는 자료의 유형으로 보면 일반 학술지 기사가 8편으로 가장 많고 단행본은 5권으로 연구보고서가 2편 프로그램 매뉴얼이 3편이며 학술지 연구논문은 4편(실질적으로 2편)이다. 발표년도는 2015년도 5편 2016년도 12편이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2013년에 출발하였고 2016년도에 전면 시행된 점을 생각하면 자유학기제 실시에 대한 도서관계의 관심과 대응은 다소 부족하고 또 늦은 감이 있다²⁾.

일반 학술기사 8편 중 5편(신철균(2015), 이승순(2015), 박지선(2015), 김진경(2016), 김정숙(2016))이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사서연구회에서 발행하는 「사도회지」에 게재된 것이고, 단행본 5편은 모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통해 수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에서 먼저 자유학기제에 대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철균(2015)과 황은희(2015)는 자유학기제 정책 추진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으로서, 이승순(2015)은 중학교 교사로

2) 2017년 7월 17일에 RISS에서 '자유학기'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중복 등록된 자료를 모두 제한 결과 학술논문은 127편, 학위논문은 131편임.

서 모두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박지선(2015), 김진경(2016), 김정숙(2016), 이재희(2016)는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황금숙(2015), 황금숙, 김수경(2016)은 자유학기제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요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유학기제 활동의 네 영역-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과 이들을 통합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노영희, 김혜인(2016a)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중학생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유학기 활동의 네 영역과 정보활용을 추가한 다섯 영역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활동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노영희, 김혜인(2016b)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 정도와 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제공 경험 여부, 그리고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강화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자유학기제에 관하여 2015년과 2016년에 연구 용역에 의한 연구보고서(황금숙 2015; 송기호 2016)를 간행한 외에도 2016년에 일련의 「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도서관에서 책과 함께하는 글쓰기, 도서관의 보물상자(친구), 도서관의 보물상자(상상력)-을 발행하였다(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16a, 2016b, 2016c). 내용은 16차시로 이루어진 글쓰기를 비롯하여 1차시, 2차시 또는 그 이상의 차시에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는 송기호(2016), 이경화, 송기호(2016), 최용훈(2016)의 연구가 있다. 송기호(2016), 이경화, 송기호(2016)의 연구는 정보활용능력과 탐구학습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 수업개선 방법으로 교과 간 통합 주제를 활용한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통합 교과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6개의 탐구 주제-매체, 문화, 감상, 예술과 산업, 환경, 창작-을 선별하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최용훈(2016)은 중학교도서관에서 자유학기 선택프로그램으로 독후 활동을 활용한 북트레일러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북트레일러는 국어, 미술, 정보를 관련교과 영역으로 설정하고 교과융합 도서관 협력수업으로 3시간 씩 17주차로 총 51차시로 진행되었다. 독서자료의 선정, 영상 촬영기법 실습, 동영상 제작프로그램 실습을 거쳐 북트레일러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자료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책갈피를 제작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 작가와의 만남을 기획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도서관 행사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매체와 기기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종합적인 사고력 함양, 교과융합으로 통합적 사고 능력이라는 미래 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의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와 도서관계는 모두 학교도서관보다 지역사회의 교육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의 활동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순적 현상의 이면에는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의 부족과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자유학기제의 관심은 교과와 수업개선과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의 개발에 있으며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들이 자유학기가 나아갈 방향으로 수업개선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에 무게 중심을 둔다면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과 학교,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2. 학교도서관과 핵심역량교육

IFLA(2015)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9개의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학교도서관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디지털 공간, 둘째, 모든 미디어의 수준 높은 정보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공간, 셋째, 개인의 호기심과 창의성, 학습에 대한 갈망을 지원하고 다양하고 대립적인 주제에 관해서 안전하게 탐구할 수 있는 안전 공간, 넷째, 정보와 지식을 창조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 다섯째, 다양한 범위의 기술적 도구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식을 생산하고 표현, 공유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기술적 공간, 여섯째, 독서와 리터러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리터러시 센터, 일곱째, 디지털 도구의 적절한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시민을 위한 센터, 여덟째, 누구라도 동등하게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보 환경, 아홉째, 문화적 전문적, 그리고 교육적 행사를 위해 개방된 사회적 공간이다.

이렇게 다양한 공간의 역할을 통해 학교도서관은 교과과정과 통합된 적극적인 교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수 학습센터로 자원 기반 역량, 사고 기반 역량, 지식 기반 역량, 독서와 리터러시 역량, 개인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 학습 관리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기술하였다. 다시 말해서 IFLA의 학교도서관 역량은 DeSeCo프로젝트, ATC21S 프로젝트, 그리고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역량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국내의 학교도서관 연구도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이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증명하고 있다. 즉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은 자아개념 형성, 자기효능감, 정보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태도, 학습습관, 학업성취도 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양소라 2009). 도서관활용수업을 경험한 학생을 면담 조사한 연구에서는 양소라(2009)의 연구에서 밝혀진 효과 외에도 수업 중 활발한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 표현력의 신

장, 친구관계 향상, 독서습관 형성, 책임감성취감 향상, 자신감 향상, 이해력 사고력 증진 등의 효과가 있었다(강봉숙 2012).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연구학교의 보고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도서관활용수업은 다양한 자료의 이용과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가능하게 하며, 독서를 통한 지식의 습득과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의 형성뿐만 아니라 소통, 협력, 중재, 조율, 배려, 양보, 책임과 같은 복합적인 효과가 관찰되었다(권은경 2014).

교수 학습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은 모든 종류의 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충족시킬 수 있고, 독서와 리터러시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의 도움으로 정보와 지식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의 기능이 교과과정의 운영에 적용될 때 수업방법은 지식정보자원을 기반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구축하는 학생 중심의 체험수업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정보를 활용하여 지식을 구축하는 추상적 공간이 아니라 모둠 수업, 협동 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움직이며 활동하는 구체적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동료들과 함께 협동하는 수업에서 학생들은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교육활동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고 그 교육효과로 우리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미래의 핵심역량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3. 학교도서관의 활용 정도

자유학기제의 교과과정 운영은 기본교과 과정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학기제의 기본교과 운영의 핵심은 교과 수업시간을 줄이고, 교과 간 연계, 융합, 통합하는 수업을 구안하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의 토론, 탐구, 조사, 프로젝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평가, 형성평가와 같은 질적 평가 역시 자유학기제의 교과과정 운영의 중요한 특성이다.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의 4가지인데 진로탐색 활동 외에는 학생의 수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자유학기제의 교육환경에서 독서 및 학교도서관이 어느 정도 활용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2013년도 연구학교의 학교별 사례보고서³⁾(최상덕 2014b), 그리고 2016년도 자유학기 운영보고서 20개를 사례로 조사하였다. 2013년은 자유학기제 시작 연도이므로 연구학교가 일정한 모델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방법을 모색하던 시점이다. 이 시기의 운영방법은 이 후 연구학교의 운영 모델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2016년도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때이므로 정착기의 활동으로 의미가 있다.

2013년도의 42개 연구학교의 학교별 사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2개 연구학교의 14%에

3) '학교별 사례보고서'는 지역별 연구담당자(교수)가 각 지역 학교의 포커스 그룹-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을 인터뷰하여 정리한 내용임.

해당하는 6교에서 독서 및 도서관 활동을 하였다. 이 중 4교는 진로탐색과 관련한 독서활동을 하였고, 1교는 독서를 자유학기의 중심으로 삼아 기본교과에서는 교과 간 연계 독서 및 독후활동을 하였고 자유학기 활동 중 선택프로그램도 독서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1개 학교에서 수업개선 방법으로 도서관활용수업을 실시하였다.

2016년도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의 20개 학교의 운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본 교과 과정과 자유학기 활동에서 독서 또는 도서관 활동을 실시한 경우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기본교과의 공통과정을 보면 국어 15교, 수학 4교, 사회 과학 영어에서 각 2교, 도덕 과 기술/가정에서 각 1교, 그리고 체육/음악/미술에서는 한 학교도 없었다. 독서관련 활동은 독서, 독서감상문, 독서토론, 독서기록, 독서포드폴리오와 같이 독서 및 독후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며 독서퀴즈, 독서골든벨과 같은 행사와 독서신문 만들기, 독서만화 그리기, 책갈피 만들기 등의 창작활동이 있었다. 도서관이용수업 또는 활용수업을 실시한 학교는 4교로 국어 3교, 사회 수학 영어에서 각 1교 총 6개의 수업 사례가 있었다. 이 중 세 개는 한 학교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이루어졌다. 20개 학교의 대부분이 전 교과에 걸쳐 프로젝트수업, 탐구수업, 토의토론 수업, 협력수업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료이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수업 유형에서 도서관이 언급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다.⁴⁾ 8개 기본교과 영역에서 20개 사례학교의 학교도서관 이용은 6개이므로 160개의 수업 단위 중에서 3.8%에서만 도서관이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이용수업이 전통적으로 국어교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6개의 도서관 활용수업 사례 중 3개가 한 학교에서 실시된 것을 보면, 학교도서관 활용은 교과목의 특성이나 수업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기 보다 학교의 교육문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된다.

자유학기 활동에서 독서와 도서관 관련 활동을 6개 영역-진로탐색, 선택 프로그램, 동아리, 예술/체육, 자율동아리, 기타 -으로 조사한 결과, 20교에서 총 39개의 활동 사례가 있었다. 이것은 전체 활동 가능 단위(20개 학교의 6개 영역, 즉 120단위)의 33%에서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영역별로 보면 동아리 13건, 진로탐색 11건, 자율동아리 6건, 선택 프로그램 4건, 예술/체육 1건, 기타 4건이었다. 가장 많은 활동이 이루어진 동아리 영역은 독서, 독서토론, 독서논술, 도서반이 주를 이루었으며 2개 학교에서 도서관 탐방반이 활동하였다. 진로탐색 영역의 11건 중에서 8건은 진로관련 독서활동이고 3건은 사서 직업체험이었고, 예술/체육 영역의 북 아트 책 만들기를 제외하면 선택 프로그램과 자율동아리, 기타 영역의 활동도 대부분 독서를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활동 중에서 사서체험과 도서관 탐방은 5건으로 4.2%를 차지하였다.

4) 수업에서 '자료 이용'은 다수 언급되고 있으나, 교사가 준비한 유인물 이용이거나 인터넷 조사가 대부분으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직접 자료를 탐색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임.

기본교과 수업에서 도서관을 활용한 학교는 2013년도 42개 연구학교 가운데 1교, 그리고 2016년도 20개 사례학교 가운데 4교뿐 이었다. 2016년도에 자유학기 활동으로 도서관 탐방과 사서체험을 한 것도 5건에 불과하였다. 2016년도의 사례학교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로 대부분 2014년 또는 2015년부터 자유학기를 실시한 2년차 또는 3년차의 학교이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비롯한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과과정과 수업방법, 평가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교도서관은 여전히 교육활동의 인프라로 충분히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다.

4. 공공도서관의 지원 활동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과정편성 운영기준’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기술한 만큼, 자유학기제 운영 초기에 교육관계자들은 공공도서관의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이 교과 연계 독서 프로그램, 진로 독서 프로그램, 독서 및 독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황은희 2015)는 필요성과 공공도서관이 학습공간으로서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교육활동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는 허브의 역할과 지역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의 인력풀을 학교와 매개하는 브릿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신철균 2015).

공공도서관의 자유학기제 지원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가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유학기제 특별 프로그램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협회는 자유학기제 특별 프로그램 모집공고에서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 학교와의 협력,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독서문화 진작’이며, 프로그램은 독서지도, 국어, 역사, 사회 등 교과 체험활동 또는 시험기간을 활용한 전일제 활동으로 운영 가능하며 인문학적 가치를 담은 주제를 권장하고 있다. 프로그램 구성은 강연, 탐방(체험), 후속모임을 각각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5).

「길 위의 인문학」 사이트에 보고된 2015년과 2016년의 프로그램 114개(2016년 38개, 2015년 76개) 중 무작위로 선정한 21개(2016년 7개, 2015년 14개)의 내용을 분석하여 <표 5>에 프로그램의 주제, 구성, 차수, 강사 수, 참여 학교 수(학생 수), 강의 장소, 추천 주제도서수, 사서/사서교사의 참여 여부를 정리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인문학 또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꿈, 끼, 진로 등으로 편성되었고 프로그램 구성은 공고에서 요청한 대로 강연, 탐방(체험), 후속모임을 각각 1회 이상 포함하고 있다. 2015년에는 14개 도서관 중 8개 도서관이 프로그램을 1차시로만 운영(이 경우 하루에 강의와 탐방을 함께 실시)하였고, 12개 도서관이 단 하나의

<표 5> 「길 위의 인문학」에서 추진한 자유학기제 특별 프로그램

도서관명	실시년도 (일수)	프로그램주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차수	강사 수	학교수 (학생수)	강의 장소	주제 도서	사서참여
경남김해장유도서관	2016(4)	꿈찾기 인문학	강의와 탐방	2차+후속모임	2	1(90)	학교	2	
전남고흥평생교육관	2016(10)	미래 꿈 진로	강의와 탐방	2차+후속모임	14	3(119)	학교	4	
충남장항공공도서관	2016(11)	선조의 삶 우리 미술 조선시대현관	강의와 탐방	3차+후속모임	3	2(208)	학교	3	
강원양양교육도서관	2016(5)	인간과 자연 공부	강의와 탐방	2차+후속모임	2	1(225)	학교	7	
광주온남어린이도서관	2016(7)	생태인문학	강의와 탐방	1차+후속모임	3	1(190)	학교	4	
부산시민도서관	2016(5)	세계의 시장	강의와 탐방	2차+후속모임	3	1(44)	도서관	4	
서울강서도서관	2016(12)	사람과 자연	강의와 탐방	3차+후속모임	4	2(150)	학도	5	
경남창원도서관	2015(3)	생태	강의와 탐방	1차+후속모임	1	1(74)	학도	1	
구미시천산도서관	2015(3)	나의 꿈	강의와 탐방	1차+후속모임	1	1(30)	학교	1	
춘천교육문화관	2015(2)	바다 인문학	강의와 탐방	1차+후속모임	1	1(43)	학교	1	후속
경기희망샘도서관	2015(3)	마을과 나	강의와 탐방	1차+후속모임	6	1(50)	지역 시설	2	5개코스 탐방지도 (사서3명)
경기대장마루도서관	2015(2)	꿈 진로	강의와 탐방	1차+후속모임	2	2(60)	도서관	1	
부천시립북부도서관	2015(3)	진로설계 (3차연계)	강의와 탐방	3차	2	1(250)	학교	1	
울산중부도서관	2015(2)	지역탐방	강의와 탐방	1차+후속모임	2	1(30)	학도	2	후속 사서교사, 사서
대구수성구립용학도서관	2015(3)	문학 역사	강의와 탐방	2차+후속모임	2	1(60)	학도	2	후속
서울용산도서관	2015(4)	인문산책 웹툰	강의와 탐방	2차+후속모임	3	1(59)	학교	3	후속
서울상도국주도서관	2015(5)	한국근대사 (3차연계)	강의와 탐방	3차+후속모임	2	1(84)	학교	0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2015(3)	인류의미래	강의와 탐방	1차+후속모임	1	1(23)	도서관	1	후속
서울개봉어린이도서관	2015(5)	진로탐색 (책내용과연계)	강의와 탐방	4차+후속모임	2	1(25)	학도	1	후속
경북영천금호도서관	2015(3)	인문학	강의와 탐방	1차+후속모임	1	1	학도	1	
천안성환도서관	2015(7)	진로 공부 인문학	강의와 탐방	3차+후속모임	3	2(413)	학교	3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길 위의 인문학」 홈페이지)

학교와 연계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일수는 10개 도서관이 2~3일로 전체로는 평균 3.4일간 실시하였다. 이에 비해 2016년에는 7개 중 6개 도서관이 2차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3개 도서관이 2개 이상의 학교와 연계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일수도 4일~12일까지 평균적으로는 7.7일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차수가 늘었기 때문에 참여하는 강사의 수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서 도서관과 직접 관련된 요소로는 강의 장소, 프로그램에 추천된 주제도

서, 그리고 사서의 참여 여부를 들 수 있다. 위의 21개 프로그램 중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된 경우는 3건, 학교도서관 6건, 그 외 12건은 학교 강당, 시청각실, 지역 시설 등이었다. 주제도서관은 1~2권의 경우가 12건, 평균으로는 2.3권(2015년도 평균 1.4권, 2016년도 4.1권), 사서의 참여는 8건으로 7건은 후속 모임에서 강의 보고서 및 탐방 보고서 작성, 감상 토론을 지도하였고 1 건은 교사와 함께 교외 탐방에서 학생지도를 담당하였다.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도서관을 경험하고, 자료를 이용하고, 사서로부터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한정적이어서 학교와의 협력이라는 목적은 달성되었지만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 독서문화 진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그 이유는 학교가 요청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공공도서관이 보유한 지식정보자원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보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장소를 물색하기에는 시간, 비용, 인력 등의 면에서 제약이 따르는 특강, 체험(탐방) 중심 활동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 공공도서관의 경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길 위의 인문학」에서 수행한 프로그램이 전체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부천시립원미도서관의 활동은 공공도서관이 자유학기제와 연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원미도서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도서관에서 직영하는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특이한 경우이다(이재희 2016). 원미도서관은 2015년 부천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기존의 청소년 직업탐색자료실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지원받았다. 원미도서관은 도서관 자원을 활용하여 교과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독서기반 청소년 진로교육에 기여하는 것과 이를 활성화하여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이재희 2016, 96).

원미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서관 자체가 직업(사서)체험의 장이 되는 것, 둘째 도서관의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 선택 주제, 동아리 등의 자유학기 활동을 제공하는 것, 셋째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컨트롤 타워로서 진로·직업 체험처 발굴, 학교의 요구사항 식별, 체험처와 학교의 연결,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는 등이다. 세 번째의 역할은 원미도서관의 특별한 경우로 앞에서 인용한 ‘교육활동 네트워크의 허브’ 또는 ‘지역사회 인력풀을 학교와 매개하는 브릿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 전체에 학교교육의 파트너로서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한 소통의 구심점으로 공공도서관의 존재를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의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운영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따라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요청할 경우 도서관이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길 위의 인문학」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강사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쉽다. 이런 점에서는 첫 번째 역할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도서관 및 사서의 업무는 진로 및 직업 체험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앞에서 분석한 학교의 활동에서나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에서도 그다지 빈번하게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은 학교의 교육 파트너이며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유학기제를 지원할 임무가 있다. 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는 외부 여건도 중요하지만 공공도서관의 내부적인 합의와 수행 목표 또는 지향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면에서는 학교의 요청과 도서관의 역량 간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이 단순히 학교의 자유학기 활동을 위한 강사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단순 공급자’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신철균 2015, 13), 도서관의 교육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하여 지역의 학교에 홍보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서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방향전환은 도서관 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5. 대학과 문헌정보학과의 역할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자유학기제가 갖는 교육적 함의는 중학교에 한정되지 않는다. 자유학기제의 학생은 진로탐색과 진로직업체험을 통해 진로와 관련된 대학의 전공분야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진로 직업과 연계하여 전공학과와 대학을 홍보할 수 있고 좋은 인적 자원을 일찍이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대학생들은 교육봉사를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고 중학생들과 활동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학기 활동은 학교와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대학생과 대학교수가 중학교 교사와 협력하여 진행한 「글짓기 꿈짓기」라는 건축융합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의 전공학과가 자유학기 활동을 지원한 좋은 예이다. 자유학기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글쓰기 활동의 ‘글짓기’와 건축 활동 ‘꿈짓기’를 한 주 씩 교차시켜서 진행하면서 인문학적 문예활동과 건축 활동을 함께 추구하였는데 글짓기는 교사가 꿈짓기는 교수와 대학생 멘토단이 담당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4명씩 5모둠으로 총 20명이며, 매주 한번 105분씩, 글짓기 7회, 꿈짓기 7회, 최종평가 1회를 포함하여 총 15차시의 활동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글쓰기와 건축의 융합 활동을 통하여 과제 집착력이 높아지고 자신의 미래와 꿈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고 건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진로에 대한 흥미도 높아졌다. 대학생 멘토단 역시 건축에 대한 재인식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중학생들의 활동과정과 결과물 분석을 통해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키우는 효과를 얻었다(유명희 2017).

또 다른 예로 미디어융합디자인을 활용한 창의진로교육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체험활동과 진로탐색 기회의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체험도구로 스마트폰과 포토샵 등을 활용하여 미디어 디자인을 제작한 후 커뮤니티에 공유할 수 있게 개발하였다. 총 16차시로 구성하고 각 차시의 활동 목표로 DeSeCo프로젝트가 제시한 지적도구 활용 역량,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자기주도적 행동 역량과 함께 공감 소통능력, 진로적성 탐색능력 등을 제시하였다(현은령 2015). 연구자는 현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단순 체험, 관람, 강연이 주가 되어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방안의 취지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가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상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중학생의 흥미를 유도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활동을 구성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달성해야 할 핵심역량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유학기 활동을 통해서 대학의 전공분야 및 관련 진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문헌정보학에는 송기호의 사례가 있다. 송기호(2016)는 통합 교과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6개의 탐구 주제-매체, 문화, 감상, 예술과 산업, 환경, 창작-에 대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수업지도의 평가요소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여섯 가지 역량을 제시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이 기존에 강조하였던 정보활용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만이 아니라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역량 함양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 지도안은 학교의 교과과정 운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개선 방법이지만, 학교의 자유학기 활동의 지도안으로, 또는 공공도서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과와 대학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을 매개로 하여 자유학기제에 쉽게 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교과과정 운영 내용을 보면 기본교과는 물론이고 자유학기 활동에서 조차 도서관과 관련된 활동-도서관 이용지도, 도서관 활용수업, 도서반 동아리, 도서관 관련 진로직업체험-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사서교사가 부족한 중학교 도서관에서 도서반 동아리의 멘토로서 자유학기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도서관은 지역의 교육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자유학기 활동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고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사서직업체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 문헌정보학 교수들 역시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이 자유학기제의 운영취지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다.

대학은 2013년도 말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유학기제의 중학교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2013년도의 42개 연구학교 중 17교에서 대학과의 협력으로 진로탐색 활동을 하였다. 이런 자유학기제 운영의 확산과 변화는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함의가 중학교에 한정되지 않으며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학습생태계의 구축(최상덕 2014c, 137-9)을 촉구하고 있다.

대학 입학 인구의 절대 감소로 대학도 변화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 간의 경쟁도 불가피하지만 학과도 자신의 전문 지식과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사회에 인식시키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학과의 활성화와 미래의 인적 자원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IV. 결론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지금은 한 학기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미 연계 학기, 연계 학년의 운영으로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학의 인재 선발과 양성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신철균 2015, 247). 이런 자유학기제 운영의 확산과 변화는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함의가 중학교에 한정되지 않으며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아우르는 교육 학습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학교 교육의 주요 인프라인 학교도서관과 학교 교육의 파트너인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자유학기제의 개념과 추진 방향에 있어서의 변화, 자유학기제에 대한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의 관심과 연구동향,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용 현황과 공공도서관의 자유학기제 지원 활동을 분석하였으며 대학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이상의 연구내용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는 진로인성체험과 수업개선을 통하여 교육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초기의 정책은 진로인성체험 활동에 무게를 두었으나,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내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으므로 도서관계의 대응방법도 이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업방법의 개선은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수업, 탐구수업 등으로 미래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식정보 및 정보기술의 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지속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의 학습정보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이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공간은 지식자원을 매개로 한 심동적 협력 활동을 통해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인프라이다.

둘째, 자유학기제에 대한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의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소극적이며,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의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보다는 공공도서관의 지원 활동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순적 현상의 첫째 원인은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부족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사서교사들의 활동이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출판자료를 통해 전달되고 있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일 것이다. 사서교사의 경험은 학교도서관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중요한 정보이므로 학술지, 전문 기관 및 협회지에 발표하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보고서를 통해 독서 및 학교도서관의 활용 예를 분석한 결과, 독서활동은 비교적 여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학교도서관 활용은 교과의 수업개선을 위해서나 자유학기 활동으로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공공도서관의 자유학기 지원 활동을 「길 위의 인문학」사업의 자유학기제 특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운영 일수와 차시, 연계 학교의 수, 강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외부 강사의 특강과 일회적 체험 탐방에 치우쳐 학생들이 도서관을 경험하고, 자료를 이용하고, 사서로부터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각의 제약과 한계에 묶여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이후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서교사와 장서가 부족한 학교도서관을 지원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공공도서관은 외부 기관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학교에 독자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학교도서관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도서관이 학내의 교육 인프라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도서관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의의가 있다.

넷째, 자유학기제가 갖는 교육적 함의에 대학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학도서관은 진로 및 직업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문헌정보학과는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학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의의도 있지만, 진로교육을 통해 전공 학과와 대학을 홍보하고 인적 자원을 일찍이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학에도 유익하다. 문헌정보학과가 중학교 또는 중학교도서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계의 관심이 공공도서관의 활동에 쏠려있는 지금, 공공도서관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학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과 학생 및 교수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입지에 있다. 자유학기제에서 공공도서관은 교육계가 기대하는 ‘지역 교육활동 네트워크의 허브 및 지역사회의 인력풀을 학교와 매개하는 브릿지 역할’을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봉숙. 2012. 『도서관활용수업을 통한 학교도서관 서비스의 STP 전략』. 박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교육부. 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47981>> [인용 2017. 9. 10].
- 교육부. 2014. 교육부-대교협, 전문대교협 MOU체결 (2014. 12. 12. 보도자료)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51824&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 [인용 2017. 10. 8].
- 교육부. 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http://www.moe.go.kr/newsearch/search.jsp>> [인용 2017. 9. 10].
- 교육부. 2017.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작한다 (2017. 9. 12. 보도자료)
 <<http://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2068&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5&s=moe&m=0503&opType=N>> [인용 2017. 10. 8].
- 교육부 자유학기제 홈페이지. 2016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
 <http://www.ggoomggi.go.kr/page/new/page_view?no=2206&boardType=32000&title=4&subTitle=4> [인용 2017. 8. 5].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6a. 『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하는 글쓰기』. 서울: 동도서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6b. 『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도서관의 보물상자(친구)』. 서울: 동도서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6c. 『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도서관의 보물상자(상상력)』. 서울: 동도서관.
- 권은경. 2014. 학교도서관 활용교육의 현상에 대한 분석 연구 -연구학교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139-164.
- 김정숙. 2016.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례. 『사도회지』, 20: 21-38.
- 김진경. 2016. 부평도서관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사도회지』, 20: 42-49.
- 노영희, 김혜인. 2016a. 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수요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187-211.

- 노영희, 김혜인. 2016b.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도서관의 역할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93-122.
- 박민정. 2009.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특징과 비판적 쟁점 분석 : 내재된 가능성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교과과정연구』, 27(4): 71-94.
- 박지선. 2015. 자유학기제와 공공도서관의 역할. 『사도회지』, 19: 17-40.
- 백남진, 온정덕. 2016.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이해와 설계』. 서울: 교육아카데미.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2016 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http://www.sen.go.kr/view/jsp/search/search_attach.jsp?&q=2016+%BC%AD%BF%EF%7%FC%0%DA%0%AF%7%D0%B1%E2%C1%A6&w=NEW_ALL&date_period=all&pg=3> [인용 2017. 10. 8].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2017 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http://www.sen.go.kr/view/jsp/search/search_attach.jsp?&q=2016+%BC%AD%BF%EF%7%FC%0%DA%0%AF%7%D0%B1%E2%C1%A6&w=NEW_ALL&date_period=all&pg=3> [인용 2017. 10. 8].
- 송기호. 2016.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신철균. 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신철균. 2015. 자유학기제 교육활동의 특징과 공공도서관의 역할. 『사도회지』, 19: 8-13.
- 신철균, 박민정. 2015.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세 학교의 대한 사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3(1): 309-338.
-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 2015.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3): 27-55.
- 양소라. 2009. 『메타분석과 실증연구를 통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유명희. 2017. 자유학기제 활용을 통한 중등 진축융합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5(1): 129-140.
- 이경화, 송기호. 2016.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통합 주제 중심의 도서관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4): 85-104.
- 이승순. 2015. 학교와 자유학기제 활동. 『사도회지』, 19: 14-16.
- 이재희. 2016. 공공도서관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부천시립원미도서관 중심으로-. 『디지털도서관』, 82: 86-105.
- 임중현. 2016.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양가성 현상의 발견과 의미. 『교육행

- 정학연구], 34(4): 99-128.
- 정광순. 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중학교 수업 개선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6): 399-421.
- 최상덕. 2014a.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2014b.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학교별 사례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2014c. 『2014년도 1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2016a. 『2015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2016b. 『2015학년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용훈. 2016.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으로서 북트레일러 운영 사례. 『디지털도서관』, 82: 62-85.
- 한국도서관협회. 2015. 2015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사업 자유학기제 특별프로그램 모집 공고(2015. 6). <<http://www.libraryonroad.kr/>> [인용 2017. 8. 11].
- 현은령. 2015. 미디어융합디자인을 통한 자유학기제 창의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2): 510-518.
- 황금숙. 2015. 『자유학기제를 위한 도서관 기반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 황금숙, 김수경. 2016. 자유학기제를 위한 도서관기반 독서문화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3): 99-128.
- 황은희. 2015. 도서관과 자유학기제. 『도서관문화』, 56(5): 30-33.
- IFLA. 2015. *The IFLA School Library Guidelines*. 2nd. edition. <<https://www.ifla.org/files/assets/school-libraries-resource-centers/publications/ifla-school-library-guidelines.pdf>> [cited 2017. 8. 10].
- CISCO. *Assessment &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https://www.cisco.com/c/dam/en_us/about/citizenship/socio-economic/docs/ATC21S_Exec_Summary.pdf> [cited 2017. 10. 3].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https://www.oecd.org/pisa/35070367.pdf>> [cited 2017.10.3].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i, Sang-Duk. 2014a. *2013 Synthesis Report on Case Study of Free Semester*

- Research Schools*.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Choi, Sang-Duk. 2014b. *2013 Report on Case Studies of Free Semester Research Schools*.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Choi, Sang-Duk. 2014c. *Synthesis Report on Case Study of Free Semester Research Schools of 1st Semester 2014*.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Choi, Sang-Duk. 2016a. *2015 Synthesis Report on Case Study of Free Semester Research Schools*.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Choi, Sang-Duk. 2016b. *A Survey Result on Operational Satisfaction of Free Semester of 2nd Semester 2015*.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Choi, Yong Hoon. 2016. "The Case of Managing Book-Trailers as a Club Activity of Free Learning Semester System". *Digital Library*, 82:62-85.
- Hwang, Eun-Hui. 2015. "Library and Free Learning Semester". *Library Culture*, 56(5): 30-33.
- Hwang, Gum-Sook. 2015. *A Study on Developing Reading Culture Program in Public Library for Free-Semester*. Seoul: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Hwang, Gum-Sook and Kim, Soo Kyoung. 2016. "A Study on Developing Model of Reading Culture Program in Public Library for Free-Semester".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3): 99-128.
- Hyun, Eun Ryung. 2015. "The Development of a Creative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a Free Semester Operation Media-Convergence Design". *Journal of Digital Design*, 15(2): 509-518.
- Jeong, Kwangsoon. 2013. "Free Semester Policy and improving Teaching and Learning in Middle Schoo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3(6): 399-421.
- Kang, Bong Sook. 2013. *STP Strategy on School library service by library assisted Instruction*. Ph. D. Diss., The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Kim, Jin Kyung. 2016. "Programs of Bupyung Public Library for Free Semester". *SADOHOEJI: Journal of Incheon Metropolitan Public Library Club*, 20: 42-49.
- Kim, Jung Sook. 2016. "A Case Study on the Programs for Free Semester". *SADOHOEJI: Journal of Incheon Metropolitan Public Library Club*, 20: 21-38.

- Kwon, Eun-Kyung. 2014.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Library Assisted Instruction -through an Analysis of Research Reports of Secondary Schoo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139-164.
- Lee, Kyeong-Hwa and Song, Gi-Ho. 2016. "A Study on Development of Libraries' Information Literacy Program based on Integrated Tasks to Support the Free Semester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4): 85-104.
- Lee, Seung Soon. 2015. "School and Free Semester Activities". *SADOHOEJI: Journal of Incheon Metropolitan Public Library Club*, 19: 14-16.
- Lim, jong heon. 2016.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Operation Process of Free Semester Program.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4(4): 99-128.
-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2016a. *Operation Manual for Libraries'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 Writing with Books in Library*. Seoul: NLCY.
-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2016b. *Operation Manual for Libraries'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 Library Treasure Box(Friends)*. Seoul: NLCY.
-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2016c. *Operation Manual for Libraries'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 Library Treasure Box(Imagination)*. Seoul: NLCY.
- Noh, Young hee and Kim, Hyein. 2016a. A Study on Students' Need for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s of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3): 187-211.
- Noh, Young Hee and Kim, Hye In. 2016b.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Libraries' Role by Using Free Learning Semester".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93-122.
- Paik, Nam Jin and Ohn, Jung Duk. 2016. *Understanding and Designing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Seoul: Education Academy.
- Park, Ji Sun. 2015. "Free Semester and the Role of Public Library". *SADOHOEJI: Journal of Incheon Metropolitan Public Library Club*, 19: 17-40.
- Park, Min-Jeong. 2009.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petence-based curriculum and its critical issu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7(4): 71-94.
- Shin, Chol-Kyun. 2014. *Settlement Measures for Middle School Free-Semester Program in Korea*. Seoul: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Shin, Chol-Kyun. 2015.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Activities for Free Semester and the Role of Public Library". *SADOHOEJI: Journal of Incheon Metropolitan Public Library Club*, 19: 8-13.
- Shin, Chol-Kyun and Park, Min-Jeong. "The Case Study of Three Schools with Free Semester Polic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3(1): 309-338.
- Shin, Chol-Kyun, Hwang, Eun-Hui and Kim, Eun-Young. 2015. "An Analytical Study on the Operation and Actual State of the Free Semester Program."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3): 27-55.
- Song, Gi-Ho. 2016. *A Study on Development of Libraries' Information Literacy Program and Manual to Support the Free Semester System*. Seoul: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Yang, So-Ra. 2010. *Meta-analysis and empirical study on the educational excellence of students through library-assisted instruction*.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Yi, JaeHee. 2016. "Analysis of Public Library Programs about Adolescent Career Search—Mainly the Case of Busheoncity Wonmi Public Library—". *Digital Library*, 82: 86-105.
- Yoo, Myung-hee. "A Case Study on the Architectural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for Secondary Students through Free Learning Semester".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5(1): 129-140.

〈부록〉 2016년도 자유학기제 보고서 분석 사례학교 명단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1	서울연희중학교	6	부산금양중학교	11	광주금호중학교	16	대구매호중학교
2	서울용마중학교	7	부산백양중학교	12	광주평동중학교	17	대구안심중학교
3	서울당산중학교	8	부산신정중학교	13	인천강화중학교	18	대구성곡중학교
4	서울천일중학교	9	부산용수중학교	14	인천원당중학교	19	대구화원중학교
5	서울잠실중학교	10	광주진남중학교	15	인천용현여자중학교	20	대구동촌중학교